항아리 속을 나와야 항아리를 굴릴 수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 그 집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어서 어느 큰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지금 뱀 속에 들어 있던 천차만별의 생명들의 의식이 사람의 의식 자체를 집어 먹었어! 집어 먹었으니 그 뱀은 뱀대로 사람의 의식이 되고 그 사람은 그냥 뱀으로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뱀이 그 사람 전체를 빼앗은 거죠. 이렇게 악에게 뺏기는 것도 있지마는 선에게 뺏기는 것도 있죠. 하지만 보세요! 이 물을 갖다가 이쪽에 부어도 한 그릇입니다. 이쪽에 부어도 한 그릇이죠? 예.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뱀에게 잡아먹히느냐, 뱀을 내가 잡아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죽였고 뱀은 그 죽는 순간에 악이, 독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독이 들어 있는 이상 그 사람을 그냥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그 뱀이 그냥 독을 주어서 사람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사람을 빼 먹었습니다. 빼 먹었으니 그 뱀을 자꾼 자꾼 짓이겨 죽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은 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뱀이 돼서 뱀 소굴로 이끌려서 들어간 겁니다. 그 스님의 말씀이 "내일 모레면 뱀의 소굴로 들어가게 생겼네."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보십시오, 엄청난 문제가 아닌가. 뱀의 소굴로 들어가서 뱀이 돼 가지고서 새끼를 낳았단 말입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그냥 오물오물하게 낳았거든요. 사람 속이든 뱀 속이든 전부 오물오물하게 들어 있는 생명체, 그 의식들이 수효대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런 둥우리에다 그냥 오물오물하게 낳아 놨단 말입니다. 그 사람 하나가 뱀이 돼 가지고 뱀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아 놨으니 인간으로 올라오려면 얼마큼 해야 올라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뱀 모습이 돼 가지고 살아나가다 보면 뱀이 사는 의식을 가지고서 수차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 의식, 습이, 뱀이 하는 놀음이 아주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깡패 소굴에 들어갔는데 나쁜 일을 해서 잡혀 들어갔다고 합시다. '인제 좋은 생각을 하고 좋게 살아야겠다. 좀 사람답게 살아 봐야겠다.'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빠져나와도 벌써 거기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너, 와! 할 일 있어." 안 하면 죽이는 겁니다.

이렇듯이, 뱀의 소굴에 들어가거나 개구리 소굴에 들어가거나 돼지, 소, 말, 어느 짐승의 소굴에 들어가도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끼들이 많은 것은 자기 인과에 의해서 그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숫자대로 낳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대로 낳은 낱낱 새끼 속에 인과가 숫자대로 또 있으니 어떡합니까, 글쎄. 그게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한 번 잘못해서 범한 이 살생의 업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크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마음공부를 해서, 즉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참선하는 수행을 해서, 뱀을 죽인 거든지 개구릴 죽인 거든지, 사람 사는 거든지, 과거에 나쁘게 했든지 좋게 했든지 전부 거기다 맡겨 놓고 걸어가라. 그래야 과거의 업보가, 어저께도 과거니까, 과거의 업보가 다 녹아서 없어지느니라.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저 뱀 새끼 낳은 것이 다 죽고, 물로 그냥 돼 버리고 사람으로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알아들어야 할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은 근본을 잡지 않고 지금 바깥으로만, 기복으로만 좇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귀신 노릇, 미신 노릇을 하니까 귀신, 미신이 있지,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하는데 왜 미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업보가 되고 인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맡겨 놓고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과거의 모든 것을 녹여 줄 수 있고, 또 위로는 부모의 묵은 빚을 갚게 해 줄 수 있다. 앞으로 2세들한테 햇빛을 줄 수 있는, 뿌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주인공밖엔 없다. 참나가 있다는 증명도, 공한 것이 공했다는 증명도 바로 주인공만이 해 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참 묘한 것은, 여러분 속에 지금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생각에 모두가 따르고 있습니다. 한생각에 그 수많은 세포 하나하나가 따르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해 나가다 보면 안에서도 파워를 일으켜요. 장에서도 파워를 일으키고 간장에서도 파워를 일으키고 위장, 콩팥, 방광, 이자, 심장 이런 데서 파워를 다 일으켜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걸 한마음으로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죠. 모두 자기인데 각각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따로 있고 여러분 속의 세포 생명들 하나하나가 따로 있다고 알기 때문에 누가 거두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죽어 줄 수 있겠습니까? 대신 똥 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잠자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또 먹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이 길은 바로 끝없는 길이요, 영원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죠. 그것을 그렇게 비유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에 그렇게 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뭡니까?" 하는 말이요. 그런데 나는 '서쪽으로 간 까닭은 또 무엇이냐' 고 묻고 싶습니다.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며, 서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이냐. 이 선(禪)이라는 것은 허공에 그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 떠다 대도 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자체가 개별적인 마음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한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죠. 여러분이 혼자 사시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포괄적인 한마음은 우주 법계를 두루 한다 이 소립니다.

내일이 칠석이고 또 며칠 있으면 백중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병고 액난이 깃들고, 그 여러 가지 고난이 용도대로 있어도 여기에서는 그걸 재료로 삼으시라고 합니다. 어떤 고통이 닥치든지 그것을 재료로 알고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시라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면해 주려고 밥이나 놓고 떡이나 놓고 목탁이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하셔서 체험을 하시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한테만 미룬다면 안 되겠어서, 보이지 않는 데 50%의 충전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충전을 해 드려야 전기가 들어와서 연구를 할 테니까 말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역대의 조사, 선지식들께서 "지식으로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경서를 아무리 위로 꿰고 바로 꿰고 잘 맞춰서 설명을 잘해 준다 하더라도 50% 충전이 없다면 자기를 깨닫기는 극히 어려우니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선맥이 이어지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전력을 쓰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은 볼 수 있는데 전력이 들어오는 과정은 못 보시죠? 한 찰나니까요. 그게 보이기나 합니까? 그런 거와 같은 것이 바로 선(禪)입니다. 또 우리가 광력을 쓰는 데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한 발 내려딛고서 행을 했는데 그걸 이보경계의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군수 물자를 이리 옮기기도 하고 저리 옮기기도 했다 이 소립니다. 참 어마어마한 문제지요. 그러나 그땐 그런 상황이니까, 칼, 창, 활 이런 걸로 쏘고 그렇게 하던 때니까 몸을 피해도 되고 몸이 안 보여도 쓸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물품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옮긴 대로 알게 되고 저쪽으로 옮기면 저쪽으로 옮긴 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 컴퓨터로 알게 된다고 할까요? 그 레이더망에 전체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물건을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세력이 센 데를 못 쓰게 만드는 것보다도 인간에게 이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편이 돼 줄 수 있거나, 또 상대 쪽은 상대 쪽대로 편리하게 이끌어 줄 수 있어야죠. 이렇게 하려면 높은 거는 낮추고 낮은 거는 높여야 이게 평등하게 된다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도 잘못 그리는 게 하나도 없고 생각을 해도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한생각이니까요. 대를 위해서 한생각으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이 공부가 어마어마한 공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프면 주인공 속에서 의사가 되는 거고, 또 가난하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고, 또 좋은 데로 못 갔으면 지장이 되는 거고 명이 짧으면 칠성이 되는 거고, 또 일이 생기면 산신이 되는 거고 독성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길을 가다가 잘못될 것 같은 의려가 생긴다면 바로 지신이 돼 주고 물에 가서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용신이 돼 준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부처님 한생각으로 동방에 아촉을 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이름을 해 놓고,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해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을 해 놨다 이 소립니다. 한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건 이름일 뿐이지 다 한마음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날 속아요. 여기 와서 이름이 다른 부처님이 있으면 그 부처님 따로 있는 줄 알고, 저기 가면 저기 따로 있는 줄 알고 이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한 마음의 도리가 성성하게 있는데도, 여러분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속고 가는 겁니다.

이성계가 그렇게 흉악한 꿈을 꾸었는데도 무학 대사한테 가서 여쭤 보니까 "야! 까마귀가 까옥까옥한 것은 네가 궁 안에 들어갈 꿈이고, 꽃이 다 진 것은 열매가 열릴 징조니라." 허허허…. 그 얼마나 꿈 해몽을 잘했습니까? 해몽이라는 그 자체는 한생각으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색경이 떨어져 깨져서 소리가 와랑창 나는 것은 국민들이 큰 소리로 추대하는 징조고, 허수아비가 문간에 데룽데룽 매달려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우러러보는 꿈이니 꿈이 아니라 생시니라. 생시가 꿈이요, 꿈이 생시니 한생각 잘해서 마음을 큼직하게 내라." 이랬단 얘깁니다. 마음이 옹졸하면 소견이고 마음이 넓으면 지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게 생각해서 내 앞에 사탕이 들어오게 할 줄 모르고 조그만 것 가지고도 오히려 고통이 들어오게 만든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산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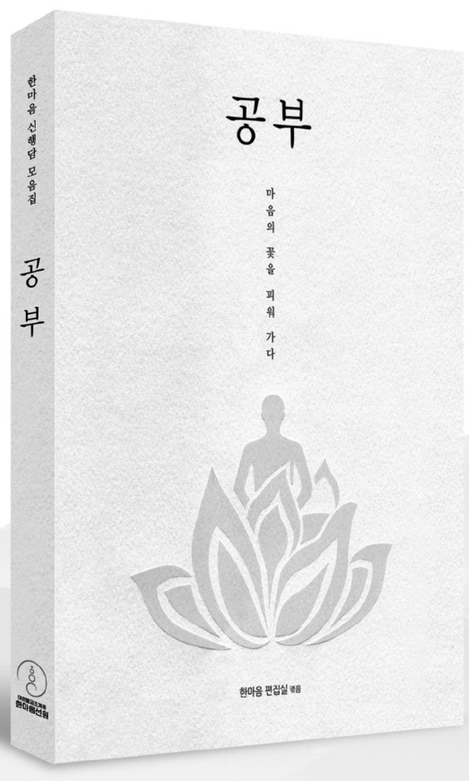
그러니 불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불(佛)은 여러분의 생명이요, 교(敎)는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면서 사시는 그 자체가 바로 교란 말입니다. 그러니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불교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도 그랬죠. "가톨릭교라는 거, 불교라는 거, 기독교라는 거, 그것은 가게 상표와 같다. 당신네 가게만 가게고 딴 사람의 가게는 가게가 아니냐?" 그랬죠. 그래서 딴 스님네들은 거기서 설법하다가 내쫓기기도 했다는데 내쫓기길 각오하고, 뭐, 각오하나마나죠. 내쫓겠으면 쫓고 말겠으면 말아라 이거지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다음 호에 계속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이 길은
바로 끝없는 길이요 영원한 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 법문은 1990년 8월 2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